

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(2013년 상반기)

2013. 8. 13.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

해외투자분석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□ 2013. 상반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4.3% 감소, 전기 대비 0.7% 감소한 112.9억 달러 시현

【 지역별 】

□ 주요 지역 중 아시아와 유럽은 증가한 반면, 북미, 중남미와 대양주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

○ 아시아와 유럽은 각각 2.6%, 50.3%의 증가를 보인 반면, 북미, 중남미와 대양주 각각 10.1%, 17.2%, 47.0% 감소

※ 아시아(53.1억 달러), 북미(19.2억 달러), 유럽(18.2억 달러), 중남미(11.1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□ 주요 업종인 제조업을 비롯하여 도매 및 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이 증가한 반면, 광업이 큰 폭 감소하고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건설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감소세

○ 제조업은 12.0% 증가한 반면 광업 투자는 40.7% 대폭 감소하여, 비중은 각각 39.7%, 19.7%임.(전년동기 비중 제조업 : 33.9%, 광업 : 31.8%)

○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(16.0억 달러)가 전년동기 대비 46.2% 감소

※ 제조업(44.8억 달러), 광업(22.3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2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11.8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.6%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동기 81.6%에서 77.1%로 축소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の大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금반기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45.5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 41.0% 대비 증가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6.2%에서 금반기 74.3%로 감소

I. 개 요

- 2013. 상반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117.9억 달러 대비 4.3% 감소, 전기 113.7억 달러 대비 0.7% 감소한 112.9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1,235개에서 9.5% 증가, 전기의 1,236개에서 9.4% 증가한 1,352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2.6%, 50.3% 증가를 보인 반면, 북미와 대양주는 각각 10.1%, 47.0% 감소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12.0% 증가한 반면, 광업은 40.7% 대폭 감소를 기록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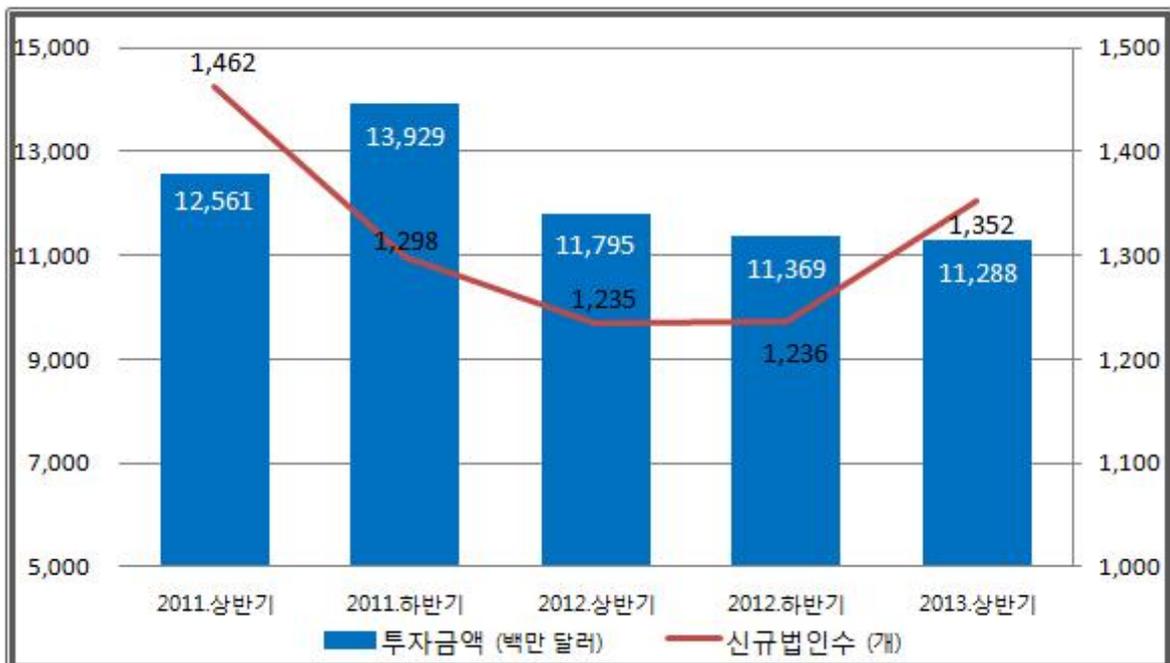
구 분	2011		2012		2012. 상반기		2012. 하반기		2013. 상반기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 (증가율)	26,491 3.0%	2,471 -1.9%	23,164 -4.5%	2,471 -1.9%	11,794 -6.1%	1,235 -15.5%	11,369 -18.4%	1,236 -4.8%	11,288 -4.3%	1,352 9.5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(47.1%), 북미(17.0%), 유럽(16.2%), 중남미(9.8%) 순이며,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(39.7%), 광업(19.7%), 도매 및 소매업(10.7%), 금융 및 보험업(10.5%) 순

<그림 1>

최근 5반기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※ 투자 상위 5대 국가(억 달러) :
중국(24.3), 미국(18.4), 네덜란드(11.5), 호주(6.3), 일본(5.6)

※ 투자 상위 5대 투자자(억 달러) :
A사 (10.6), B사 (9.1), C사 (5.7), D사 (4.5), E사 (3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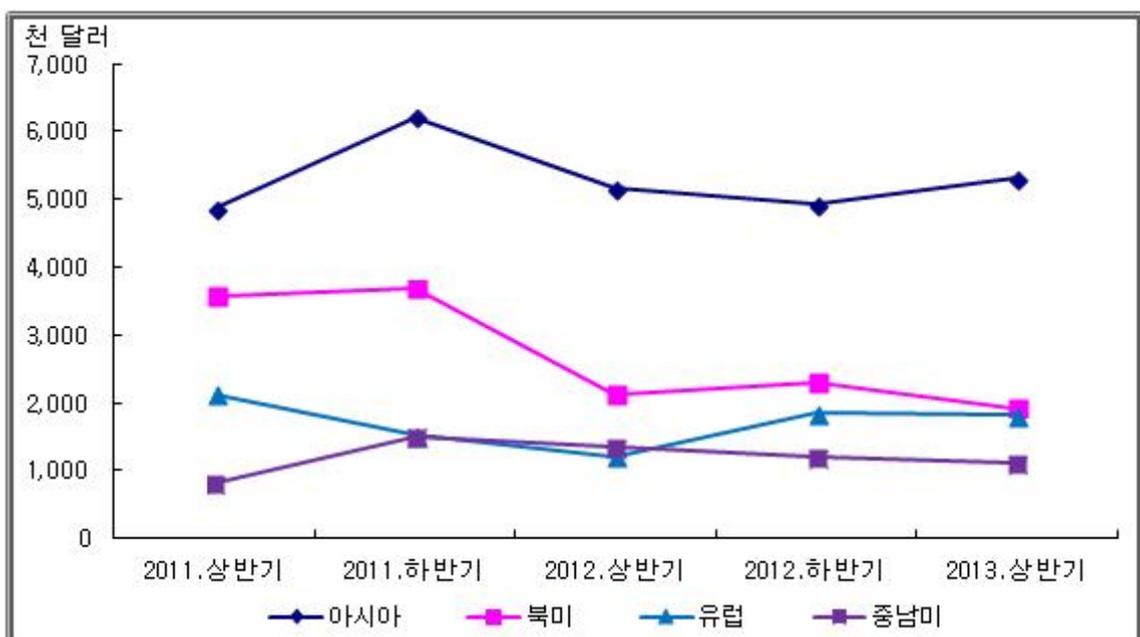
※ 투자 상위 5대 현지법인(억 달러) :
A사 중국 현지법인 (7.0)
C사 네덜란드 현지법인 (5.7)
D사 중국 현지법인 (4.2)
B사 호주 현지법인 (3.7)
F사 필리핀 현지법인 (3.0)
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전년동기 대비 2.6% 증가, 유럽 지역이 50.3% 대폭 증가한 반면, 북미와 대양주는 각각 10.1%, 47.0%의 감소를 보임

<그림 2>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7.1%, 북미 17.0%, 유럽 16.2% 순이며,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80.3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이 각각 43.9%, 18.1%, 10.3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72.3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24.3억 달러), 일본(5.5억 달러), 유럽은 네덜란드(11.5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18.4억 달러), 중남미는 브라질(3.7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34.1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5.6억 달러), 유럽은 금융 및 보험업(7.7억 달러)과 제조업(3.8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5.1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4.1억 달러), 중남미는 제조업(4.2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상반기		2013. 상반기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0,063	1,933	11,088	1,859	10,116	1,677	5,180	814	5,312	914
(비중)	38.0%	70.0%	41.9%	67.4%	43.7%	67.9%	43.9%	65.9%	47.1%	67.6%
(증감율)	48.7%	22.3%	10.2%	-3.8%	-8.8%	-9.8%	6.4%	-14.7%	2.6%	12.3%
북미	4,624	552	7,266	467	4,449	470	2,137	240	1,922	240
(비중)	17.5%	20.0%	27.4%	16.9%	19.2%	19.0%	18.1%	19.4%	17.0%	17.8%
(증감율)	-22.9%	3.0%	57.1%	-15.4%	-38.8%	0.6%	-40.4%	-13.0%	-10.1%	0.0%
유럽	6,122	155	3,650	155	3,070	122	1,214	63	1,825	77
(비중)	23.1%	5.6%	13.8%	5.6%	13.3%	4.9%	10.3%	5.1%	16.2%	5.7%
(증감율)	14.9%	18.3%	-40.4%	0.0%	-15.9%	-21.3%	-43.0%	-24.1%	50.3%	22.2%
중남미	2,139	94	2,329	110	2,532	92	1,341	54	1,110	45
(비중)	8.1%	3.4%	8.8%	4.0%	10.9%	3.7%	11.4%	4.4%	9.8%	3.3%
(증감율)	105.4%	5.6%	8.9%	17.0%	8.7%	-16.4%	64.8%	-15.6%	-17.2%	-16.7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.6% 증가한 53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2.3% 증가한 914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24.3억 달러, 비중 45.7%), 일본(5.5억 달러, 10.4%), 베트남(4.3억 달러), 필리핀(4.0억 달러), 홍콩(3.3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10년 36.1%, '11년 33.2%, '12년 32.7%, '12년 상반기 29.6%, '12년 하반기 35.9%

- 업종별로 제조업(34.1억 달러, 비중 64.2%), 도매 및 소매업(5.6억 달러, 10.5%), 광업(3.3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6억 달러), 건설업(1.6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3.3%, '11년 52.3%, '12년 48.0%, '12. 상반기 51.6%, '13. 하반기 44.1%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7.0억 달러
 - D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4.2억 달러
 - F사의 필리핀 제조업 투자 : 3.0억 달러

나. 북미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0.1% 감소한 19.2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증감 없는 240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18.4억 달러), 캐나다(0.9억 달러) 순
- 업종별로는 광업(5.1억 달러, 비중 26.4%), 도매 및 소매업(4.1억 달러, 비중 21.4%), 제조업(2.4억 달러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1.7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28.2%, '11년 43.9%, '12년 54.7%, '12년 상반기 64.6%, '12년 하반기 45.6%
- 북미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 : '10년 9.1%, '11년 15.8%, '12년 8.6%, '12년 상반기 7.7%, '12년 하반기 9.4%
- 주요 투자 사업
 - G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3.2억 달러
 - H사의 미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 : 1.7억 달러
 - A사의 미국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1.5억 달러

다. 유럽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0.3% 증가한 18.2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2.2% 증가한 77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네덜란드(11.5억 달러), 영국(1.6억 달러), 노르웨이(1.1억 달러), 터키(0.9억 달러), 체코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-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(7.7억 달러, 비중 42.1%), 제조업(3.8억 달러, 비중 21.1%), 광업(2.2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8억 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1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- 유럽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10년 0.2%, '11년 16.3%, '12년 0.8%, '12년 상반기 2.0%, '12년 하반기 0.0%
 - 유럽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13.3%, '11년 16.7%, '12년 25.9%, '12년 상반기 28.2%, '13년 하반기 24.5%
- 주요 투자 사업
 - C사의 네덜란드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5.7억 달러
 - A사의 네덜란드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1.2억 달러
 - I사의 노르웨이 제조업 투자 : 1.1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7.2% 감소한 11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6.7% 감소한 45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브라질(3.7억 달러, 비중 33.4%), 멕시코(3.5억 달러, 비중 31.9%), 케이만군도(1.3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4.2억 달러, 비중 38.0%), 광업(3.4억 달러) 순
 - 중남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12.8%, '11년 44.8%, '12년 34.8%, '12년 상반기 47.7%, '12년 하반기 20.4%
- 주요 투자 사업
 - J사의 멕시코 광업 투자 : 2.1억 달러
 - K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1.4억 달러
 - A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7억 달러

마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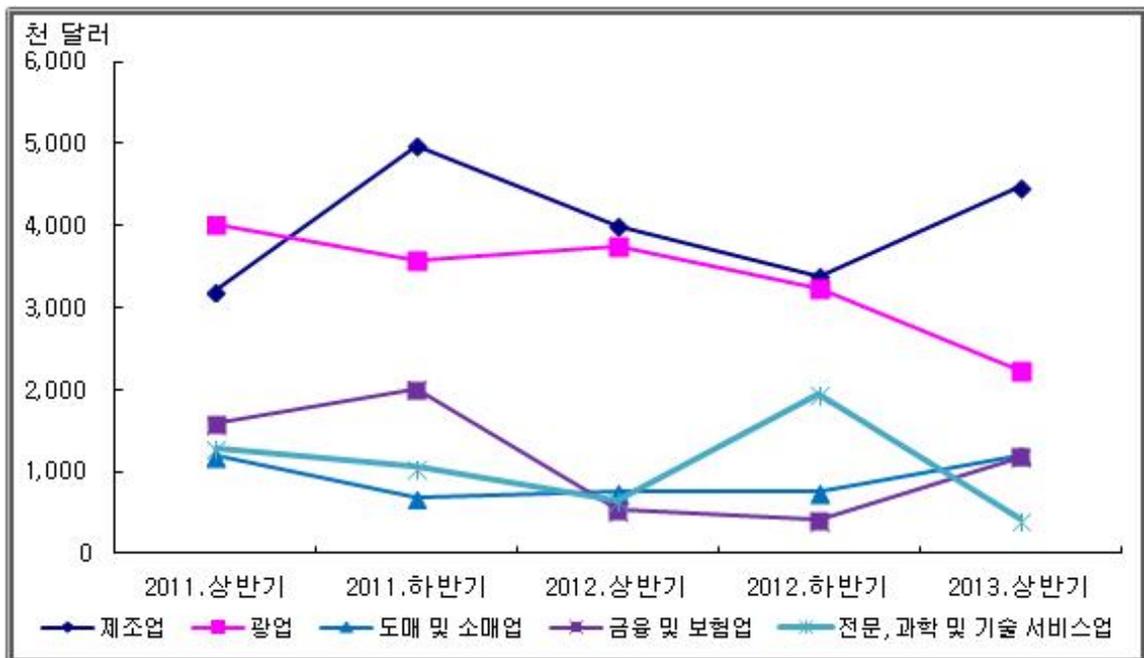
- 전년동기 대비 증동 15.8% 증가, 대양주 -47.0%, 아프리카 -60.1%의 감소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2건 : 각각 3.7억 및 1.7억 달러
 - B사의 이라크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 - L사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 투자 : 0.6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전년동기 대비 금융 및 보험업 118.4%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11.9%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4.3%, 도매 및 소매업 60.1%, 제조업 12.0% 증가한 반면, 광업 40.7%, 건설업 59.5%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.5%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22.0%, 운수업 14.1% 등은 감소

<그림 3>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인 39.7%, 광업 19.7%, 도매 및 소매업 10.7%, 금융 및 보험업 10.5%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.7% 순
 - 제조업은 중국(21.0억 달러), 필리핀(3.8억 달러), 브라질(3.4억 달러), 베트남(3.0억 달러), 미국(2.4억 달러) 순, 광업은 호주(6.1억 달러), 미국(4.8억 달러), 멕시코(2.1억 달러), 미얀마(1.6억 달러), 네덜란드(1.4억 달러) 순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8.8%, '11년 30.9%, '12년 31.9%, '12년 상반기 33.9%, '12년 하반기 29.8%
 -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30.0%, '11년 28.6%, '12년 30.2%, '12년 상반기 31.8%, '12년 하반기 28.5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상반기		2013. 상반기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7,026	1,121	8,184	1,068	7,384	874	3,997	439	4,479	519
(비중)	28.8%	38.8%	30.9%	38.7%	31.9%	35.4%	33.9%	35.5%	39.7%	38.4%
(증감율)	53.9%	32.0%	16.5%	-4.7%	-9.8%	-18.2%	24.6%	-22.4%	12.0%	18.2%
광업	7,319	54	7,579	48	6,991	40	3,756	26	2,226	11
(비중)	30.0%	1.9%	28.6%	1.7%	30.2%	1.6%	31.8%	2.1%	19.7%	0.8%
(증감율)	34.3%	-20.6%	3.5%	-11.1%	-7.8%	-16.7%	-6.3%	13.0%	-40.7%	-57.7%
도매 및 소매업	1,301	678	1,890	611	1,516	596	756	286	1,210	287
(비중)	5.3%	23.5%	7.1%	22.1%	6.5%	24.1%	6.4%	23.2%	10.7%	21.2%
(증감율)	-27.6%	28.7%	45.3%	-9.9%	-19.8%	-2.5%	-37.4%	-17.6%	60.1%	0.3%
금융 및 보험업	3,273	63	3,602	69	943	42	542	20	1,184	23
(비중)	13.4%	2.2%	13.6%	2.5%	4.1%	1.7%	4.6%	1.6%	10.5%	1.7%
(증감율)	66.1%	34.0%	10.1%	9.5%	-73.8%	-39.1%	-65.8%	-41.2%	118.4%	15.0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제조업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44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.0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8.2% 증가한 519개 기록
 -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코크스·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6.5%, 548.3% 투자 증가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21.0억 달러, 비중 46.9%), 필리핀(3.8억 달러), 브라질(3.4억 달러), 베트남(3.0억 달러), 미국(2.4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(34.1억 달러)와 중남미(4.2억 달러) 지역이 각각 76.2%, 9.4%의 비중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76.3%, '11년 70.9%, '12년 65.7%, '12년 상반기 66.9%, '12년 하반기 64.3%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중남미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3.9%, '11년 12.8%, '12년 11.9%, '12년 상반기 16.0%, '12년 하반기 7.2%
- 투자금액 비중은 39.7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8.4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8.6백만 달러로 업종 평균치(8.3백만 달러)에 가까움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16.5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7.0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4.5억 달러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4.1억 달러), 코크스·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2.3억 달러)의 순

3. 광업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22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0.7% 감소, 신규법인수는 57.7% 감소한 11개 기록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가 16.0억 달러로 전년동기 29.8억 달러 대비 46.2% 감소
- 국가별로는 호주(6.1억 달러), 미국(4.8억 달러), 멕시코(2.1억 달러), 미얀마(1.6억 달러), 네덜란드(1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대양주(6.5억) 및 북미(5.1억)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29.3%, 22.8% 차지
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5.5%, '11년 16.7%, '12년 29.8%, '12년 상반기 37.5%, '13년 하반기 20.8%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17.8%, '11년 42.1%, '12년 34.8%, '12년 상반기 36.7%, '13년 하반기 32.6%
- 신규법인수 비중(0.8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19.7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2.0억 달러로 업종 평균 대비 큼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9.7억 달러) 투자비중이 88.5%, 금속 광업(1.5억 달러)이 6.9% 차지

4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12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0.1% 증가, 신규법인수는 0.3% 증가한 287개 기록
 - 소매업(자동차 제외)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344.6%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(4.1억 달러), 일본(3.2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33.8%, 26.1%
- 세부업종별로는 소매업(7.9억 달러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3.7억 달러) 순

5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반기 중 투자금액은 11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8.4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5.0% 증가한 23개 기록
 - 투자전문회사의 네덜란드 금융업 투자(5.7억)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유럽(7.7억 달러), 중남미(1.6억 달러), 아시아(1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반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.6% 감소로 비중이 81.6%에서 77.1%로 감소, 반대로 중소기업 투자는 30.0% 증가하여 비중이 15.8%에서 21.5%로 확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10		2011		2012		2012. 상반기		2013. 상반기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20,336	399	21,450	373	19,175	331	9,629	162	8,701	194
(비중)	83.5%	13.8%	81.0%	13.5%	82.8%	13.4%	81.6%	13.1%	77.1%	14.3%
(증가율)	21.4%	38.1%	5.5%	-6.5%	-10.6%	-11.3%	-8.1%	-8.0%	-9.6%	19.8%
중소기업	3,576	1,320	4,050	1,289	3,485	1,112	1,864	558	2,423	663
(비중)	14.7%	45.7%	15.3%	46.7%	15.0%	45.0%	15.8%	45.2%	21.5%	49.0%
(증가율)	8.9%	13.3%	13.2%	-2.3%	-13.9%	-13.7%	2.4%	-18.7%	30.0%	18.8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4.3%에 불과하나,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은 대기업(0.4억 달러)이 중소기업(3.7백만 달러) 대비 약 12배

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35.5억 달러, 비중 40.8%), 광업(21.8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9.7억 달러) 순
 -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4.9%, '11년 27.5%, '12년 28.9%, '12년 상반기 32.1%, '12년 하반기 25.6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43.2억 달러), 북미(14.5억 달러), 유럽(1.0억 달러) 순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8.7억 달러, 비중 35.7%), 금융 및 보험업(7.5억 달러, 비중 30.9%) 순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0.6%, '11년 52.4%, '12년 48.7%, '12년 상반기 43.9%, '12년 하반기 54.3%
 - 중소기업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9년 3.2%, '10년 9.4%, '11년 1.4%, '12년 상반기 1.4%, '12년 하반기 1.3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9.0억 달러), 유럽(8.4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상반기		2013. 상반기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92	2,184	560	2,086	519	1,908	328	2,939	314	2,712
~200만달러 이하	1,072	381	999	356	946	311	575	531	603	545
~500만달러 이하	1,386	140	1,304	129	1,236	105	651	196	714	218
~1000만달러 이하	1,380	73	1,419	69	1,525	58	922	123	734	101
~5000만달러 이하	4,353	77	5,077	82	4,546	63	2,638	112	2,615	116
~1억달러 이하	2,399	13	3,614	15	3,044	11	1,849	25	1,177	18
1억달러 초과	13,183	18	13,516	23	11,348	15	4,831	15	5,132	22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8.0%에서 금반기 33.6%로 감소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41.0%에서 45.5%로 증가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6.2%에서 금반기 74.3%로 소폭 감소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0		2011		2012		2012. 상반기		2013. 상반기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309	17	192	14	252	11	143	7	75	5
10% ~ 50% 미만	2,914	393	2,882	362	2,312	272	1,357	136	1,095	150
50%	191	103	609	97	606	95	229	54	252	47
50% 초과~100% 미만	3,624	253	3,434	234	2,529	196	1,081	96	1,475	114
100%	17,328	2,121	19,373	2,053	17,465	1,897	8,985	942	8,392	1,036